NYC

인권위원회

뉴욕 시는 뉴욕을 뉴욕답게 만드는 다양성에 자부심을 가집니다. 뉴욕 시 인권위원회는 성적 취향을 비롯한 다양한 근거에 기반을 둔 차별과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이성애자이거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람의 인지된 또는 실제 성적 취향에 근거한 직장, 주거 시설 및 공공 시설 내에서의 차별은 법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된 또는 실제 성적 취향에 근거한 서비스 거부.
- 인지된 또는 실제 성적 취향에 근거한 고용 거부 또는 해고.
- 인지된 또는 실제 성적 취향에 근거한 임대 거부.
- 인지된 또는 실제 성적 취향에 근거한 괴롭힘.

차별을 받았다고 여기시거나 법률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 **311** 로 뉴욕 시 인권위원회에 문의하시거나 **nyc.gov/humanrights** 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ILL DE BLASIO 시장 • CARMELYN P. MALALIS 위원장/의장

N Y C P R I D E

@NYCCHR